

연중 제17주일

기도서 P. 400 B해

- 제1독서(열왕후 4, 42-46)
- 제2독서(에페 4, 1-6)
- 복음(요한 6, 1-15)

# 순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상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02935)



## 보라! 이 기적의 빵을

김영신 신부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분이 바로 신조들에게 약속된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였다. 특히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의 정치적·경제적 속박 밑에서 해방시켜 줄 왕으로 믿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지상의 왕이 아니라, 천상의 왕으로 오심을 믿게 하신다.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은 긴급한 사항에 처한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굶주림과 고통을 덜어주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천상의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양식인 성체성사의 신비를 알려주심이 틀림없다.

이 생명의 빵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체이며,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일용할 양식(성체와 성혈)으로 먹고 마시며, 현재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음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이 약속한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다. (요한 6:12-13)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사제가 드리는 미사를 통하여 세상의 안일과 부귀영화만 누리려는 현세적인 기적만을 찾지 말고, 십자가의 정사로 우리 죄를 갚아주고, 부활하십시오. 세상의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찾아야겠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고, 굳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함께" 혼인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신앙을 맞이하는 동녀가 되어야겠다. (마태오 25장 1~13) 특히 우리가 미사 중에 봉헌하는 미약한 제물로 영원한 미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인 빵을 이뤄 현세의 부조리와 억압 속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빵을 합당하게 모시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질해야겠다. (창원등 주임신부)

### 문정현 신부(파티마 주임) 재수감

드디어 또다시 일이 빛이 났어졌다. 올겨울이 왔다. 1977. 12. 31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김해 교도소에서 출감되었던 문정현신부님이 소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였는지, 그만 1979. 7. 26 오전 10시 등 "정지 결정 취소"와 함께 잔형(1년 2개월)을 치루기 위해 다시 수감됐다. (서울 교도감 검찰청 이진우 검사 명의 「재판집행 촉탁서」에 의거) 10시 50분 주교님께서 소식을 듣고 직접 도경국장실을 찾아가 문신부님을 격려 위로해 주셨고, 집에서 급히 옷가지를 챙겨 11시 30분 교구청 신부님들의 전송과 함께 전주교도소 문에 들어섰다. 끝까지 전투하심을 굳이 빈다.



## 안보강연회

휴전협정 4만세기가 넘는 오늘토록 우리 한 민족은 슬프게도 계속 전쟁의 위협속에 살고 있다. 준 진시상항 - 그래, 우린 한시도 대공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긴장을 켜고 사는 비운의 민족이 되었나 보다 하여, 자나깨나 반공·반공·안보·안보를 외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요즘 곳곳에서 틀만 있으면 「안보강연회」를 개최한다. 어느면에선 대단히 필요하고 잘하는 일이라고도 생각된다.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남침만을 피하고 있는 잔학무도한 공산당의 만행을 행여 잊거나, 모르고 덤벼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자주 신경을 쓰고 교육받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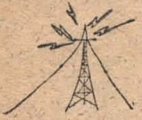
헌데, 유감스럽게도 그 강연회가 웬일인지 요사이엔 그 각도가 좀 빛나가는 것 같아 적이 서연찮다. 공산주의와 정면 대립하는 종교, 그대 신명을 다해 그 사상과 대결하는 종교인·성직자 그리고 민주·민생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인사들을 어찌자고 위정자들은 무작정 "물지각한 존재", "용공분자"로 몰아 부치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다. 참으로 어찌구무 없는 노릇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안보요, 누구를 위한 안보란 말인가? 대공전선에 총화단결을 위하여 진정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 복리를 위한 안보라면 어찌하여 이같이 국민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억압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내뿜는가? 주인(主人)인 국민의 진정한 말과 참견을 외면하고 못마땅해 하는 정부를 우리는 외려 의심한다.

아무튼 우리 서로를 위해 자주 강연회를 갖자. 정교분리(政教分離)란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정치인도 종교인도, 지성인, 노동자, 농민도 그 어느 누구도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 생존을 위해 책임을 다하자.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이 땅에 공산주의나 또는 그와 비슷한 체제, 저 몹시리치는 학정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게...

## 순정이 산책

우리는 성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 신부 수녀



□ 교회와 사회에 보내는 정평위 백서

# 오늘의 한국 현실과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

<지나호에서 계속>

## 2. 정치분야<계속>

한편 대통령 선거에 뒤이어서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 그리고 현행헌법과 국회법으로 인해, 실제 의사당에 와서는 신민당이 3분의 1에 약간 미달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제10대 국회 개원 벽두에 신민당 원내총무에 의해 <제도상의 모순>이라고 비판되었다. 그러나 야당은 다시 국회의장 선거 방법에 있어 <퇴장>이라는 반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여당에 의해 강요받고 거처에 절충식으로 굴복하여, 반대의사 표시의 자유마저 상실했다는 특이한 사례를 남겼다.

앞에서 인용된 요한 23세 교황의 교서 내용중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소망이며, 자아 발전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질 기회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을 때, 그 국민의 자아 발전의 길 또한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79년 연초에 한 일간 신문이 실시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 청장년 세대의 과반수가 이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아 발전의 좌절감에 연관이 없을지 숙고할 문제이다.

## 3. 경제분야

<교회는 사도적 수행을 위해 노동자들 가운데로 사제들을 파견하여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함께 감수 하며 교회의 관심과 노력을 증거하게 하였다. 이제 나(교황 바오로 6세)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민족들의 발전」 교서에서도 이미 행동을 시작하라고 강조하였다. 평신도들은 현세적 질서의 쇠신이 자신들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부름 48)

<서민들은 비인간적 생활 조건의 희생물이 되어 양심이 어두워지고 가족제도마저 해를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합숙생활은 가족적 친근감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 신혼 부부는 적당한 가격의 마땅한 주택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실망하고 만다. 어린이들은 너무도 협소한 재 집을 뛰쳐 나와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스로의 보상방법을 취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감독해 줄 사람이 없다. 책임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조절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무거운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부름 11)

교회가 경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처럼 오직 인간을 위해서이다. 이른바 산업화 과정에 있는 한국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도시산업선교회 등 크

리스찬 노동운동 단체들이 때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까지 모함을 받기도 하지만, 하느님, 백성 전부를 사랑해야 할 교회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힘 없는 근로 서민 대중에게 내리 사랑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가 일반 경제구조 자체를 문제삼을 때에도 산업화 또는 물질화되는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려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사목 헌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의 목적은 즉 <생산의 기본목적은 생산품의 증가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지배 권력을 위함만에 있지 않고 그 목적은 오직 인간에 대한 봉사에 있는 것이다.>(사목 64)

경제 분야에서 인간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불행은 으레 도시근로자 및 농민을 비롯한 서민 대중의 생활에 나타난다.

한국은 1978년에 국민총생산(GNP)이 1인당 1천 달러선에 올라선 고도의 경제성장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 3월 말에 정부 당국이 조사 발표한 것을 보면 근로자 총인원 7백93만명중 76.7%가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수준(과세집)인 월급 5만원선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이와같은 과세집 기준은 5인 가족을 거느린 근로자들에게 까지 해당되는 것이니, 76.7%인 5백44만1천명의 근로자 가족인원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국민의 3배의 무중 하나가 남세의 의무이므로 이들은, 국민이 될 자격 중 한가지를 상실하고 사는 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포함해도 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총수는 전체 근로자의 88.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88.6%에 달하는 근로자의 가족 인원은 또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 한국 근로 대중의 90%선에 이르는 절대다수가 격심한 저임금으로 인해 불행한 삶에 허덕이고 있다.

1979년에 넘어와서 정부의 경제기획원은 국민에게 경제지책을 밝혔는데, 그 내용에는 한국의 근로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참아 주어야겠다는 요청이 들어 있었다. 그 요청의 이유로는 국제 무역경쟁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 가능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 최저 임금제는 1976년에 2만원 선으로 시작하여 1978년까지 3만원선으로 실시해 오던 최저한의 근로자 임금보호 제도였다. 당국의 말에 의하면 근로자 월급을 더 올릴 수 있는 기업제도 최저 임금제를 핑계로 올리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반면에 3만원 미달의 월급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 점에 더 큰 우려가 간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월급 인상을 위한 행정지도 노력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니 불필요하게 최저임금제만 폐지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최저 임금제」는 원래 교회의 대사회 교서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제도이다. (계속)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육육탕, 은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리관패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은수 온돌 공사

한 등 암 (모이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52 이리 862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타은행 3·4층 ☎ 5943·8629

이리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 노동자 농민을 위한 인권강연회 합열에서 성대히 개최

합열본당과 제7지구 사제단 주최로 지난 23일 밤 8시 30분 익산지역에선 처음으로 인권강연회가 열렸다.

갑작스런 정전 소동으로 대회가 30여분 지연되고 마이크 사정이 고르지 못해 다소 예를 먹인 점은 있었으나, 이웃 용안·황등·화산 등지와 공소 교우들까지 운집, 500여명이 넘는 청중으로(신부 23명 참석) 성당을 가득 메워 대회는 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문신부님의 열변 강연과 농민회의 사례보고에다 목사님의 특별기도가 있는 이번 강연회에는 많은 외교인, 개신교, 원불교 신자들이 그리고 마침 하기 봉사중인 대학생들의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시간에 쫓겨 종종 아쉬움을 남기고 끝을 맺었다.

다음에는 좀더 진지하고 알찬 대 강연회를 충분한 준비하에 더욱 힘있게 개최할 것을 다짐하면서.

## 「하기 교리교사 수련대회」를 보고

보다 더 바르고 보다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길을 쫓고, 그 모습을 닮아 보려는 열기가 비좁은 송광사 자연의 집을 꽉 채웠다.

지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미덥고 예쁜 총각·처녀선생님들의 모임. 교리교사 연수회에는 작으마치 각 본당에서 130여명이 참여했다. 본당신부님들도 격려차 수시로 다녀 가시고 김종길 지도신부님, 김준호 간사신부님 그리고 임원들의 평별에 쏟는 열의에 사뭇 고개만 숙여질 뿐, 그 고마움 다 담을 길 없었다.

특별히 이번 연수회에는 푹푹하기로 유명한 귀한 강사님(정하돈 수녀님)을 모신 것이 이채, 이론교육에 각별히 힘을 기울여 본것 같다. 아무튼 서로간에 두루 익히고 나누는 숨은 겸손과 산 모범을 그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만을 살그머니 빌었다.

폐회식엔 직접 주교님께서 참석, 지극한 격려와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고 장엄한 파견 미사도 집전, 그들 사명의 막중함을 새롭게 해주셨다.

## 가톨릭 대학생 지역대회 개최

(7월 21일-24일 장수군 천천면 연화분교에서)

딱지 붙은 학생들이 이어져인지 장소 선정에서부터 된다. 안된다 말생 빛던 기우는 아랑곳 없이, 예정대로 약속된 장소(천천면 연화분교)에 약속된 인원(90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

지도신부 김진소신부님 지시대로 적적 차질없이 움직인 젊은 사자들의 집회.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며 내실을 굳혀 다짐했는지... 심심산천에 쟁고 닭고 불사른 폐기찬 모습들에 새로운 미소와 기쁨을 드리고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 요심이 (313)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우대  
**태 광 사**  
주 유·가애타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⑥ 6346

### ◎ 건강 관리 센터 ◎

#### 영진 약국

-조계약 전문

김을 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앞 중앙 시장동

(전화 ③ 4577, 5789)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제  
냉난방탁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기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⑥ 1585

### M<sup>c</sup>GREGOR



#### 맥그리거

삼성물산전주대리점  
※성인·아동용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전화 ⑥ 4451번  
유 올리아나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송옥 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⑥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앞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교우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 세운식당

전화 ⑥ 8530

군산시 신창동 신생그릴 앞

황베로니카(기복)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긴급소집 : 일시-1979. 7. 29. 오후 3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1. 신학생 후보자를 위한 성소교육 1일 단축...30(월)~31일(화)  
관심있는 젊은이와 부모님들, 본당의 지도자들, 이 교육기회를 놓치지 마시다
2. 교구 연합회 중·고등학생 하기 수련회...8월 1일(수)~4일(토), 무주 앞섬에서  
참가비-900원(기타 숙식 자체해결)
3. 군중(정승현·박종신)신부 임관식...8월 4일(토) 오전 9시, 서울 행정학교에서
3. 농촌 부녀지도자 연수회...8월 10일(금) 오후 2시~12일(일) 오후 1시, 가톨릭센터에서,  
참석인원-40명, 참가비-1,000원(왕복 교통비 지급함)  
※ 8월 5일까지 신청 바람. 교구청내 농민회 전북연합회 사무실-
5. 신앙대학 강좌...8월 13일(월)~16일(목), 대전 가톨릭 교육회관에서  
주제: 교회사와 현대의 복음선교, 대상-남여 교우 100명, 수강료-16,000원(숙식)  
※ 교회사에서 복음선교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배우자!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1. 보미사단 모임 : 30일(월) 오전 9시
  2. 어머니 합창단 : 31일(화) 오전 9시
  3. 중·고학생 수련회 : 1일(수)~4일(금)  
장소-고산전
  4. 성심부녀회 : 3일(금) 어머니미사 후
  5. 주일학교 여름 특별교리 : 6일(월)~11일(토)  
시간-오전 9시~12시
  6. 열령회 수련회 : 6일(일) 오전 9시 장소-고산전
  7. 로사리오 공개 셀 : 제218차  
7월 29일 오후 3시, 장소-교리실
  8. 새 영세자를 고백성사 보세요
- 지난주 봉헌금 : 231,145원

####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복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첫 영성체 준비교리 : 8월 5일부터  
매일 오전 9시~10시까지
4. 중·고등학생 하기수련회 : 7월 29일~8월 1일까지  
전안 하가막리에서, 참가비-1인당 3,000원씩
5. 공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정을 도와달라고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6.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은 매월 분담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시다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중복  
사도 회장 유제상

1. 감사합니다 : 익명 선봉기 기금 20,000원
  2. 진복회 월례회 : 오늘 미사후(회의실)
  3. 유아세례 : 8월 3일(금) 오전 9시  
대 부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4. 중·고생 하기수련회 : 7월 30일 오전 8시, 압록에서  
참가비-1,200원 많은 학생 참여 바람
  5. 주일학교 어린이 하기특별교리 : 첫고해·첫영성체만  
국민학생들의 빠짐없는 참석이 되도록 부모님의 협조 바람
  6. 영화상영(심계) : J.O.C 주최  
우리말 녹화로 새로운 영화임,  
대인-500원, 어린이-300원
  7. 많은 예비자 인도바랍니다(12월 영세자 신청)
- 지난주 봉헌금 : 32,955원 교무금 : 129,170원

####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박성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중·고생(학생회) 하기수련회  
일시 : 79. 7. 30~8. 2일 3박4일  
장소 : 진안 양화리 냉천  
3,000원 쌀 3포 한부도 빠짐없이 참석 바람  
지도인출 : 본당신부님, 보좌신부님, 사도회임원,  
부녀회, 성우회, 청년회
3. 부녀회 월례회 : 8월 8일(수) 오전 9시까지 성당집결  
장소-고덕산장 입구 좌편 하천(각시바위 상단)

회비-1,000원 회원들 빠짐없이 참석바람(중식제공)

4.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8월 6일~11일 매일 오전 9시~12시  
국민학교 학생들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도록
  5. 합동기 상영 : 매주일 공식미사 후
  6. 첫 절례 7 : 8월 4일(토) 저녁미사후 성체장복
- 지난주 봉헌금 : 229,745원

####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연수회 : 중·고등·대학생(7월 30~8월 1일) 압록
  2. 수요기도회 : 8월 1일 8시30분
  3. 하기 특별교리(국민학생) : 8월 6일~11일  
오전 9시~12시
- 지난주 봉헌금 : 86,785원

####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요안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신협미사회 : 7월 29일
  3. 누깰다 부녀회 : 8월 4일(토)
  4. 성당 신축기성회 : 공식미사 후(임원들 참석 바람)  
안건 : ① 기공식준비,  
② 신축공사 추진에 대한 제반 기사문제
  5. 중·고생 목상회 : 8월 10일 예정
  6. 주일학교 하기교리 : 7월 30일~8월 4일  
※ 주일학교 후원회 조직 : 주일학교 어린이가 있는  
자모님은 누구나 환영(뜻이 있으면은 수녀님께 알  
려주세요)
  7. 신축기금 납부하신분 : 문삼봉·오옥동(각 5만원)
- 지난주 봉헌금 : 142,290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반
  2. 첫 영성체 교리 : 7월 30일~8월 11일(오전 9시)  
국민학교 3학년 이상. 준비물 : 교재 200원(생명의  
빵)·필기도구·크레용·어린이 미사책
  3. 중·고학생 하기수련회 : 지리산, 7월31일~8월3일
  4.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 8월 6일~12일까지
  5. 선봉기 회사 감사합니다  
김중오, 유중현, 김병오, 박도식, 장준수, 이현재,  
유경욱, 양한승, 문혜준, 이덕수, 장애자, 김봉호,  
송재진
- 지난주 봉헌금 : 312,400원

####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 7월 30일~8월 4일
  2. 중·고생 하기수련회 : 7월 29일~31일
  3. 중·고생 하기 특별교리 : 8월 1~4일 매일 오후 4시
  4. 유아세례 : 매일 10시미사 후
  5. 부녀회 : 회장-고래석(젤마), 부회장-전영자(골롬  
바), 총무-백옥영(헤레나), 서기-소병희(올리아)
  6. 7월중 저희 분당으로 이사오신 교우  
이순남(테레사), 임순성(가브리엘), 김정자(막달레  
나), 박용철(비오) 각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64,905원